

‘가축개량은 곧 국토를 확장하는 일’

취재 : 김 동 성
(본지 편집과장)

『가축을 개량하는 것은 곧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과 같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월 11일 귀국한 정영철씨의 말이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공업화도 어디까지나 농업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농업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더욱 진력해야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제시하면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국가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 박사는 『대량생산과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국토를 확장하고, 품종을 개량하며, 새로운 경영관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량생산과 원가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 박사는 『우리

나라 여건상 국토를 확장하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 가축개량은 끝이 없는 영구적인 사업인 동시에 국토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육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또한 정 박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돈은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인 피그 사이클(pig cycle)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며 우리나라의 양돈 현실을 꼬집고는, 『업계에서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 연구기관·학계에 연구 프로젝트를 주어 업계와 학계가 서로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이어 『돼지고기도 곧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때, 최근의 쇠고기 수입정책을 교훈삼아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가축개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생산

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창간될 때부터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독자들과도 친근한 정 박사는 82~83년 영국 애딘버러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3년간 가축육종학을 전공했다.

정 박사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돼지 MHC 제1부류 유전자의 다형현상 분석(Analysis of DNA Polymorphism of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MHC) Class I Genes in Swine)」이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DNA 형태가 가축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 연구했다.

정 박사는 『지금까지는 30~90kg 또는 30~104kg까지 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의 능력을 검정·종돈을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돼지가 출생했을때 곧바로 이 돼지의 능력이 우수한지, 나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즉 돼지가 출생했을 때 피를 뽑아 백혈구에서 DNA를 추출, DNA의 형태를 보면 그 돼지의 유전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2~3년 후 실용화가 될 경우엔 종돈능력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검정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또한 검정시 발생하는 사람의 실수도 예방할 수 있어 학계에서는 가축육종사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연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 박사는 이 논문을 발표해, 아이오와 주립대 총장으로부터 「최우수 논문상(Research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학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논문은 향후 종돈개



정영철 박사

「돼지 MHC 제1부류 유전자의 다형현상 분석」 논문 제출해 아이오와 주립대 총장으로 부터 최우수 논문상 수상

량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7년 부산에서 출생해 71년 서울농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자연농원에서 10여년간 실무에 종사하기도 한 정 박사는 보기드문 실무·이론을 겸비한 정통 출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박사는 미국에 체류할

때 각종 양돈정보를 국내에 보급해 왔고, 특히 국내 양돈인들이 종돈을 수입하거나 양돈업계를 연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는 어김없이 공항에 나타나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 양돈업계에 끼친 공이 많다. 그래서 윤희진씨(대월종돈장 대표) 같은 이는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 박사가 미국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

앞으로 선진그룹 양돈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될 정 박사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